

2017년 상반기 펀드평가보고서

김 경 미 (펀드평가팀 연구원)

[1] 펀드시황 개요

2017년 상반기(2017.01 ~ 2017.05) 글로벌 증시는 프랑스 대선 및 주요국 총선 등 유로존 정치이슈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리스크로 변동성이 확대했으나 글로벌 제조업 지표 개선과 교역액 확대로 상승세를 보였다. 주요 선진국 물가지표가 상승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흥국 수출규모 증가로 글로벌 경기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조하며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국내 증시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불안이 다소 해소되면서 연 초 2,000pt 초반에서 5월 장미대선 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2,350pt까지 상승했다. 거래소 기준 상반기 투자자별 매매동향은 외국인 순매수대금이 7조 5,612억원을 기록했고 개인은 5조 3,741억원의 순매도를, 기관은 4조 9,499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5월 31일 코스피는 16년 말 대비

321.22pt(15.85%) 상승한 2,347.38pt를 기록했으며 업종별로는 대형주 비중이 높은 IT와 에너지 업종이 각각 23.53%, 18.47% 상승하며 KOSPI 상승을 견인했다. 시가총액 규모별로는 MKF 대형주 지수(17.89%)가 중형주 지수(14.99%)와 소형주 지수(7.45%)보다 우수한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0.00pt(3.16%) 상승한 652.04pt로 마감했다.

2017년 상반기 국내주식형펀드는 15.40%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수탁고는 6조 6,383억원(ETF 포함) 감소를 기록했다. 해외주식형펀드 또한 글로벌 증시 상승세로 10.00% 상승했으나 수탁고는 783억원 줄었다. 국내채권형은 0.6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1조 7,930억원의 수탁고 감소를 보였다. 해외채권형은 2.46% 상승했으며 9,024억원의 수탁고 증가를 시현했다.

〈표 1〉 유형별 펀드 수익률 및 설정액증감

(단위 : 개,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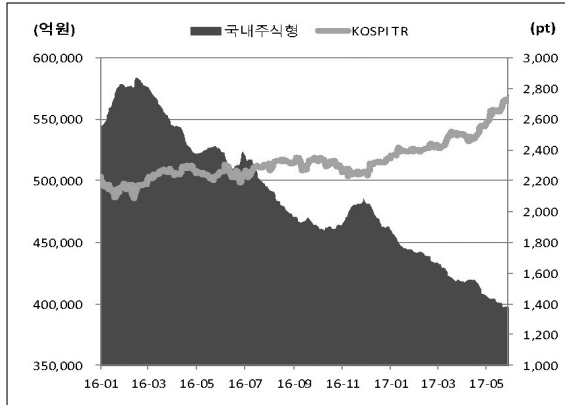
유형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증감				수익률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국내주식형	793	396,206	-66,383	-61,228	-129,998	-155,197	15.40	2.25	16.66	14.44
국내혼합형	623	168,841	-11,852	-19,683	-30,372	57,950	4.12	-0.35	3.64	8.62
국내채권형	235	171,855	-17,930	-5,999	-13,484	76,694	0.61	-0.40	0.86	7.70
해외주식형	671	186,527	-783	-14,404	-18,656	-9,965	10.00	5.90	14.22	20.19
해외혼합형	272	35,175	3,552	-869	1,513	119	6.17	1.52	7.18	12.67
해외채권형	140	69,014	9,024	6,738	17,286	11,182	2.46	0.73	4.43	7.94

주1) 2017년 상반기 기준 : 2017.01.02 ~ 2017.06.01 / 2016년 하반기 기준 : 2016.07.01. ~ 2017.01.02

주2) 펀드수 및 설정액은 일반펀드(모펀드 제외) 및 종류형펀드를 집계함. 단, 수익률은 운용/모펀드를 제외한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펀드 대상임
출처 : FnSpectrum, 에프앤가이드 유형분류 기준(공모펀드 대상) / 기준일: 2017.0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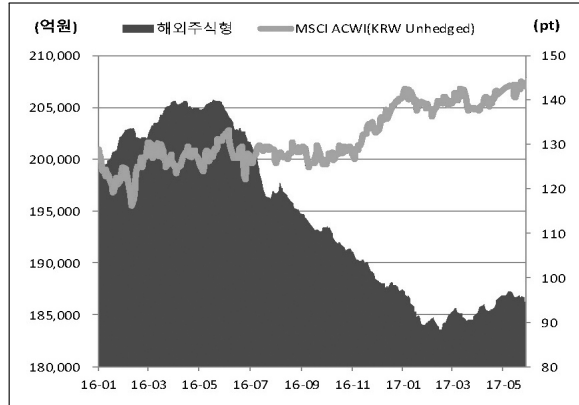


〈그림 1〉 국내주식형 설정액 추이



출처: FnSpectrum / 운용펀드 기준

〈그림 2〉 해외주식형 설정액 추이



출처: FnSpectrum / 운용펀드 및 일반펀드 기준, MSCI ACWI(KRW Unhedged)

2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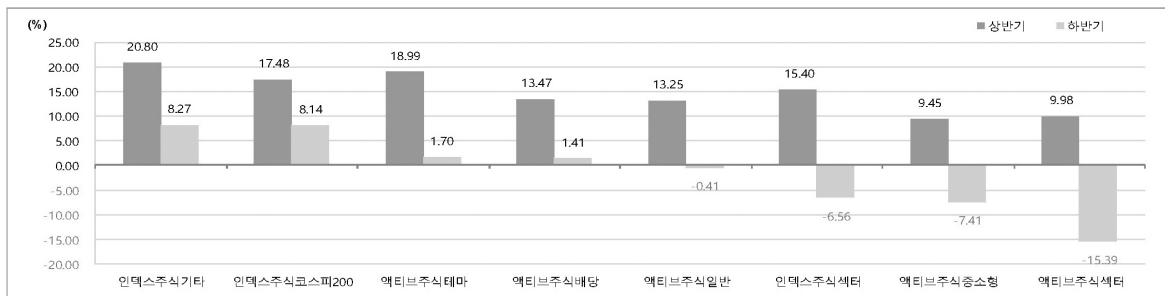
2.1 유형별 성과

국내주식형펀드(15.40%)의 상반기 성과는 배당포함 시장수익률 16.03%를 0.63%p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및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의 수출증가와 국내 기업의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대형주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면서 인덱스펀드(18.99%) 수익률에 크게 기여했다. 적극적 운용을 통해 시장수익률의 초과 달성을 추구하는 액티브펀드(13.51%) 또한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투자 종목의 규모에 따라 세부 유형 수익률은 편차를 보였다.

소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이 9%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코스피 상승시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펀드가 다수 편입된 인덱스주식기타가 20.80%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시현했다. 반면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열세로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의료, 헬스케어 및 소비재 업종에 투자하는 액티브주식중소형과 액티브주식섹터는 각각 9.45%, 9.98%를 기록했다. 한편 대형그룹주에 주로 투자하는

〈그림 3〉 국내 소유형별 기간수익률 비교



출처: FnSpectrum

펀드들의 기여로 액티브주식테마는 18.99% 수익률을 시현해 액티브펀드 안에서 업종과 규모별로 선별적인 성과를 보였다.

2017년 상반기 국내주식형펀드는 수탁고 감소(6조 6,383억원)를 보였다. 액티브주식전체의 설정액이 4조 4,454억원 감소하며 인덱스주식전체 설정액 감소분인

2조 1,929억원보다 더 많은 유출을 보였다. 소유형별로는 인덱스주식섹터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수탁고 감소를 기록했다. 인덱스주식섹터는 978억원의 수탁고 증가를 기록했으나 액티브주식일반은 2조 6,821억원의 설정액 감소로 가장 큰 유출을 보였고 인덱스주식코스피 200에서도 1조 3,065억원의 수탁고 유출을 기록했다.

〈표 2〉 소유형별 펀드 수익률 및 설정액증감

(단위 : 개, 억원, %)

소유형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증감				수익률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국내주식형 전체	793	396,206	-66,383	-61,228	-129,998	-155,197	15.40	2.25	16.66	14.44
액티브주식전체	532	268,875	-44,454	-44,288	-96,637	-119,552	13.51	-0.71	10.74	9.85
액티브주식일반	377	159,517	-26,821	-30,521	-62,828	-114,696	13.25	-0.41	10.86	9.77
액티브주식중소형	38	29,740	-2,181	-3,554	-6,111	15,245	9.45	-7.41	-1.91	12.08
액티브주식배당	58	43,700	-9,145	-1,584	-11,568	16,146	13.47	1.41	12.99	25.97
액티브주식섹터	8	2,993	-90	-288	-518	1,559	9.98	-15.39	-7.73	3.64
액티브주식테마	50	32,609	-6,533	-8,340	-15,928	-38,122	18.99	1.70	20.35	4.49
인덱스주식전체	261	127,331	-21,929	-16,940	-33,361	-35,645	18.32	7.26	26.84	20.80
인덱스주식코스피200	88	71,669	-13,065	-9,740	-19,208	-32,617	17.48	8.14	27.33	22.90
인덱스주식섹터	53	11,385	978	755	1,968	7,130	15.40	-6.56	6.90	8.61
인덱스주식기타	120	44,277	-9,841	-7,956	-16,121	-10,158	20.80	8.27	29.92	18.26

주1) 펀드수 및 설정액은 일반펀드(모펀드 제외) 및 종류형펀드를 집계함. 단, 수익률은 운용/모펀드를 제외한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펀드 대상임
 주2)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6.01 / 2016년 하반기 기준: 2016.07.01 ~ 2017.01.02
 출처 : FnSpectrum. 에프앤가이드 유형분류 기준(공모펀드 대상) / 기준일: 2017.06.01

2.2 운용사별 성과

액티브주식형 펀드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39개 운용사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률 상위 10개의 운용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JP모간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만이 배당포함 코스피 수익률 16.03%를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액티브주식테마 유형의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 1(주식)'과 액티브주식일반 유형인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가 우수한 수익률을 시현

하며 해당 운용사 수익률을 견인했다. 이어 'JP모간한국오피튜니티증권자A(주식)'을 앞세운 JP모간자산운용(17.72%)와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A'를 위시한 트러스톤자산운용(16.42%)이 그 뒤를 이었다. 액티브주식전체의 설정액은 상반기 동안 4조 4,454억원 감소하며 유출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베어링자산운용은 '베어링고배당증권자(주식)'에 5개월(2017.01.02 ~ 2017.06.01) 간 529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며 운용사 전체로는 724억원의 설정액 유입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IBK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각각 257억원, 218억원의 설정액 증가를 기록했다. 두 운용사



모두 코스피 대표 종목에 투자하는 액티브일반 펀드에 높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덱스주식형 부문에서 운용사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평가대상 19개 운용사 가운데 상위 10개사 모두 배당포함 코스피 상반기 수익률(16.03%)을 상회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28.23%로 시장수익률 대비 12.20%p 상회했으며, 하나UBS자산운용이

20.07%의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인덱스주식형 펀드 전체(ETF 포함)에 2조 1,929억원의 수탁고가 감소한 가운데 멀티에셋자산운용의 설정액은 328억원 증가했다. 흥국자산운용이 24억원 유입으로 뒤를 이었고 그 외 나머지 17개 운용사는 수탁고가 직전 반기 대비 같은 수준이거나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표 3〉 국내액티브주식형 운용사별 수익률

(단위 : 개, 억원, %)

운용사	펀드수	설정액	수익률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한국	43	37,586	18.63	2.99	21.37	9.86
JP모간	2	2,242	17.72	4.71	18.12	12.18
트러스턴	10	3,833	16.42	1.93	15.66	10.33
칸서스	4	922	15.88	-2.62	10.91	13.95
삼성	23	4,106	15.68	2.11	16.92	16.24
마이다스	13	3,005	15.29	-2.35	10.78	9.52
피델리티	4	312	15.29	2.40	17.21	16.50
하이	16	1,640	14.98	2.38	16.55	9.76
한화	15	3,140	14.82	-0.13	12.03	22.28
교보약사	10	629	14.82	3.63	17.46	21.16

〈표 4〉 국내액티브주식형 운용사별 설정액증감

(단위 : 개, 억원)

운용사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증감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베어링	8	4,295	724	238	1,011	2,472
IBK	15	1,749	257	-232	-16	-57
키움투자	18	2,698	218	-177	-33	-407
하이	16	1,640	217	-223	-29	-1,736
한화	15	3,140	64	-354	-309	-887
대신	12	427	40	-95	-64	-187
삼성	23	4,106	22	-572	-632	-1,760
플러스	2	310	-2	-3	-6	-90
동부	7	2,366	-28	39	-80	771
유리	6	314	-32	-75	-112	-420

주1) 같은 기간 배당포함 코스피 지수 수익률: 1개월 16.03%, 3개월 4.56%, 1년 1.21%, 3년 1.29%

주2) 펀드수 및 설정액은 일반펀드(모펀드 제외) 및 종류형 펀드를 집계함

주3)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6.01 / 2016년 하반기 기준: 2016.07.01 ~ 2017.01.02

출처 : FnSpectrum / 월말 기준 설정액 200억원 이상, 최근1개월 평균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운용사 대상 / 기준일: 2017.06.01

〈표 5〉 국내인덱스주식형 운용사별 수익률

(단위 : 개, 억원, %)

운용사	펀드수	설정액	수익률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NH-아문디	7	4,377	28.23	12.03	44.02	30.02
하나UBS	8	648	20.07	9.92	32.16	22.14
삼성	51	40,894	19.59	9.04	30.57	20.96
동양	2	519	18.13	8.54	28.59	35.73
한국	13	5,694	17.97	8.02	27.52	21.27
KB	16	9,284	17.96	8.42	27.91	21.15
키움투자	24	3,838	17.60	7.39	26.36	22.23
멀티에셋	3	2,481	17.60	8.21	27.66	21.34
교보약사	8	16,414	17.45	7.99	26.99	23.00
신한BNPP	8	437	17.44	9.33	28.23	21.06

〈표 6〉 국내인덱스주식형 운용사별 설정액증감

(단위 : 개, 억원)

운용사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증감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멀티에셋	3	2,481	328	145	564	-
흥국	2	433	24	23	104	378
마이다스	1	340	0	0	0	0
동양	2	519	-17	270	253	194
유진	1	927	-75	-14	-91	574
이스트스프링	2	685	-80	-94	-192	-663
유리	11	694	-81	-422	-507	-1,107
IBK	4	643	-198	-309	-536	-
동부	4	1,053	-255	-741	-1,056	-989
신한BNPP	8	437	-299	37	-271	-164

주1) 같은 기간 배당포함 코스피 지수 수익률: 2017년 상반기 16.03%, 2016년 하반기 4.56%, 1년 1.21%, 3년 1.29%

주2) 펀드수 및 설정액은 일반펀드(모펀드 제외) 및 종류형 펀드를 집계함

주3)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6.01 / 2016년 하반기 기준: 2016.07.01 ~ 2017.01.02

출처 : FnSpectrum / 월말 기준 설정액 200억원 이상, 최근1개월 평균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운용사 대상 / 기준일: 2017.06.01

2.3 펀드별 성과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 상위 10개 펀드는 모두 유형평균(15.40%) 대비 7%p 이상 상회하였다. 인덱스주식기타 유형인 한화자산운용의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재간접형)A' 펀드가 상반기 동안 40.99%의 성과를 거두며 국내주식형 펀드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주식-파생형]C' 과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주식-파생형)A' 펀드가 각각 36.65%,

34.96%의 수익률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상위 5개 모든 펀드가 인덱스주식기타에 속하며 코스피를 추종하면서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파생결합형 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자1(주식)A'과 '한국밸류10년투자100세행복증권(주식)(A)'이 각각 23.86%, 23.73%를 기록하며 상위에 랭크됐다.

상반기 국내주식형에 속한 개별펀드 자금유입 상위 5개 펀드(ETF 제외)에서는 총 2,219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펀드는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 '미래에셋베당프



리미엄연금지축증권전환형자1(주식혼합)로 각각 565억원, 561억원의 자금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신영자산운용의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주식)운용' 펀드와 한국

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 1(주식)(모)' 펀드에서 각각 7,036억원과 3,273억원의 설정액이 감소했다.

〈표 7〉 국내주식형 수익률 TOP10 펀드

(단위 :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유형	설정액	순자산	수익률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A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C	한화	인덱스주식기타	114	105	40.99	15.51	62.50	32.56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C	NH-아문디	인덱스주식기타	230	271	36.65	13.68	54.95	29.36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A 클래스	KB	인덱스주식기타	103	121	34.96	12.79	51.44	24.31
하나UBS파워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A	하나UBS	인덱스주식기타	114	139	26.33	10.98	39.92	25.93
NH-Amundi 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 Ce	NH-아문디	인덱스주식기타	376	401	26.24	10.91	40.06	25.47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A	동양	액티브주식테마	367	337	23.86	2.45	26.84	-1.19
한국밸류10년투자100세행복증권투자신탁(주식)(A)	한국밸류	액티브주식일반	274	348	23.73	6.26	28.09	40.31
IBK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주식)A	IBK	액티브주식테마	124	123	23.38	2.05	27.22	3.05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C-F)	한국	액티브주식테마	1037	1129	23.07	3.16	27.2	-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A)	한국	액티브주식테마	208	181	23.04	2.71	26.61	-0.57

주1) 운용/모펀드 제외

주2) 같은 펀드 중 수익률 우수한 클래스 대상

주3)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6.01 / 2016년 하반기 기준: 2016.07.01 ~ 2017.01.02

출처 : FnSpectrum. 설정액 100억원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함. 국내주식형펀드(공모) 대상 / 기준일: 2017.06.01

〈표 8〉 국내주식형 자금유출입 상위/하위 펀드

(단위 : 억원)

구분	펀드명	운용사	유형	설정액	순자산	자금유출입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상위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NH-아문디	인덱스주식기타	1,978	2,340	565	-2,653	-3,996	-405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지축증권전환형자1(주식혼합)	미래에셋	액티브주식배당	1,497	1,643	561	313	914	1,271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액티브주식일반	696	844	454	157	552	299
	한국투자중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모)	한국	액티브주식중소형	521	609	336	7	186	272
하위	IBK그랑프리한국대표증권투자신탁(주식)	IBK	액티브주식일반	636	775	302	-114	-1	-173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신영	액티브주식배당	22,718	26,388	-7,036	-868	-18,174	1,163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주식)(모)	한국	액티브주식일반	6,514	7,671	-3,273	-1,897	-14,367	-10,862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 1(주식)(모)	한국밸류	액티브주식일반	9,277	9,246	-2,666	-2,469	-13,674	-5,571
위	KB밸류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KB	액티브주식일반	11,797	11,947	-2,398	-1,977	-12,758	-12,389
	NH-Amundi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NH-아문디	인덱스주식기타	1,900	2,200	-1,718	-1,871	-6,235	-6,876

주1) 운용 및 일반펀드 대상 (ETF 제외)

주2)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6.01 / 2016년 하반기 기준: 2016.07.01 ~ 2017.01.02

출처 : FnSpectrum. 설정액 100억원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함. 국내채권형펀드(공모) 대상 / 기준일: 2017.06.01

[3] 국내채권형

3.1 유형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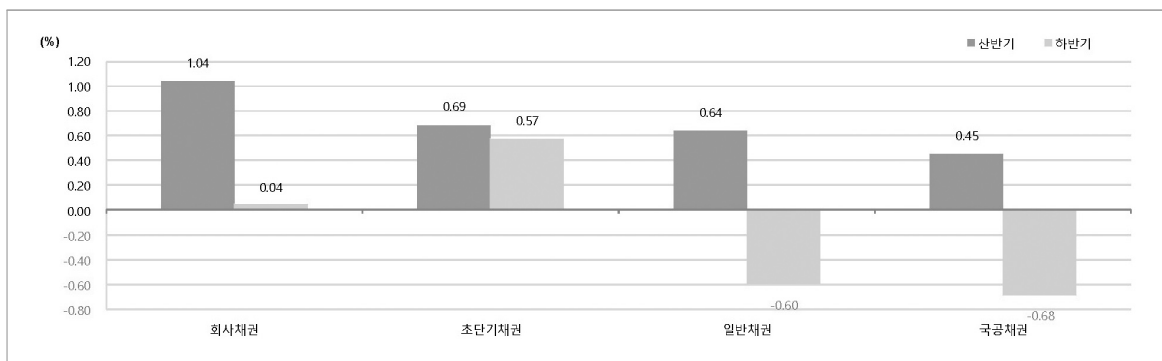
2017년 상반기 국내채권시장은 유로존 경기개선 및 미국 Fed의 기준금리인상과 자산축소 기대에 영향을 받으며 상승세를 보였다. 만기구간별로 살펴보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을 위한 금리동결 단행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북핵 문제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단기물에 수요가 집중돼 1년 미만물의 금리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장기물 금리는 국내경기 호조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장기 국공채 발행량 증가로 상승커브를 그리며 기간별 금리 스프레드를 확대했다. 2017년 상반기 국고채 3년물은 연초대비 2.30bp 상승한 1.66%를 기록했고 국고채 10년물은 15.60bp 상승한 2.23%로 마감했다. 5월 31일 기준 국고3/10년물 스프레드는 16년 말(0.44bp) 대비 0.57bp로 확대됐다. 회사채 무보증 3년물 AA-과 BBB- 금리는 각각 6.50bp, 15.70bp 상승한 2.19%와 8.42%를 기록했고 국고3년/회사채 무보증 BBB- 스프레드는

16년 말 6.63bp에서 6.76bp로 확대됐다.

국내채권형 전체 성과는 0.61%를 기록하며 KIS채권종합 수익률(0.47%)을 0.14%p 웃돌았고 해당 소유형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건설사 및 정유업종의 실적 향상과 우수한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회사채권 유형이 1.0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국공채(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등) 투자비중이 60% 이상인 국공채권은 10년 이상 장기채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0.45%의 유형 성과를 거뒀다.

국내채권형펀드에는 대내외 경기 개선으로 인한 금리 상승 우려와 위험자산 선호현상으로 2017년 상반기 동안 1조 7,930억원의 설정액이 유출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1조 4,242억원의 설정액 유입을 기록한 초단기채권을 제외한 모든 소유형에서 수탁고 감소가 나타났다.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소유형은 국공채권으로 상반기 동안 1조 8,790억원 감소했다. 일반채권과 회사채권의 설정액은 차례대로 1조 2,567억원, 19억원의 유출세를 보였다.

〈그림 4〉 국내채권형 소유형별 기간수익률 비교



출처 : FnSpectrum



〈표 9〉 소유형별 펀드 수익률 및 설정액증감

(단위 : 개, 억원, %)

소유형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증감				수익률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국내채권형전체	235	171,855	-17,930	-5,999	-13,484	76,694	0.61	-0.40	0.86	7.70
국공채권	60	46,697	-18,790	-3,437	-17,004	20,802	0.45	-0.68	0.46	7.49
회사채권	4	2,581	-19	-528	-446	1,631	1.04	0.04	1.66	8.32
초단기채권	19	49,511	14,242	-4,586	11,910	28,328	0.69	0.57	1.46	5.45
일반채권	146	70,813	-12,567	2,665	-7,078	23,682	0.64	-0.60	0.87	8.82

주1) 펀드수 및 설정액은 일반펀드(모펀드 제외) 및 종류형펀드를 집계함. 단, 수익률은 운용/모펀드를 제외한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펀드 대상임.

주2)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6.01 / 2016년 하반기 기준: 2016.07.01 ~ 2017.01.02

출처 : FnSpectrum, 에프앤가이드 유형분류 기준, 국내채권형펀드(공모) 대상 / 기준일: 2017.06.01

3.2 운용사별 성과

국내채권형 펀드 전체의 설정액은 2017년 상반기 동안 1조 7,930억원 감소했다. 운용사별로는 유진자

산운용의 단기채 펀드 자금 증가로 설정액이 8,865억원 증가했으며 동양자산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이 각각 1,331억원과 1,208억원의 설정액 증가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표 10〉 국내채권형 운용사별 수익률

(단위 : 개, 억원, %)

운용사	펀드수	설정액	수익률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KTB	3	2,661	1.54	0.71	2.51	0.00
동양	10	8,291	1.04	0.43	2.05	-
유진	2	10,830	1.01	0.74	1.95	-
흥국	3	2,524	0.98	0.06	1.67	8.03
알리안츠	1	549	0.97	-0.26	1.27	8.12
대신	4	642	0.77	-0.15	1.16	7.06
이스트스프링	5	4,901	0.75	0.01	1.36	8.09
베어링	2	453	0.70	-0.68	1.10	10.65
메리츠	9	615	0.69	-0.16	1.17	8.54
한화	14	16,562	0.68	0.19	1.21	7.06

〈표 11〉 국내채권형 운용사별 설정액증감

(단위 : 개, 억원)

운 용 사	펀 드 수	설 정 액	설정액증감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유진	2	10,830	8,865	574	9,540	-
동양	10	8,291	1,331	2,440	4,036	7,213
하나UBS	13	7,527	1,208	206	1,500	3,662
하이	7	2,227	358	317	641	1,213
흥국	3	2,524	343	-1,592	-1,769	1,831
메리츠	9	615	339	-36	304	340
동부	2	1,934	148	1,431	1,931	1,933
신영	3	250	-1	33	43	-
대신	4	642	-19	57	31	584
이스트스프링	5	4,901	-29	-252	-343	-251

주1) 같은 기간 KIS 채권종합 수익률: 2017년 상반기 0.47%, 2016년 하반기 -1.63%, 1년 1.00%, 3년 1.11%.

주2) 펀드수 및 설정액은 일반펀드(모펀드 제외) 및 종류형 펀드를 집계함.

주3)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6.01 / 2016년 하반기 기준: 2016.07.01 ~ 2017.01.02

출처 : FnSpectrum / 월말 기준 설정액 200억원 이상, 최근1개월 평균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운용사 대상 / 기준일: 2017.06.01

3.3 펀드별 성과

국내채권형 펀드의 2017년 상반기 수익률은 0.61%를 기록한 가운데, 수익률 최상위 펀드는 KTB 자산운용의 하이일드채권형인 'KTB공모주분리과세 하이일드증권[채권혼합]C' 펀드로 나타났다. 해당 펀드는 KIS채권종합 수익률인 0.47%를 1.07%p 상회한 2.11%를 기록하며 가장 우수한 성과를 시현했다. 뒤를 이어 '동양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1(채권)C-W'와 '흥국멀티플레이증권자4[채권]C-w'는 각각 1.23%, 1.14%의 성과를 거두며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채권형 펀드 전체 설정액이 1조 7,930억원 감소한 가운데, 자금유입 상위 5개의 펀드에는 2017년 상반기 동안 1조 3,685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펀드로는 유진자산운용의 일반채권형 펀드인 '유진챔피언단기채증권자(채권)' 펀드에 8,718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장 큰 폭의 유입세를 보였다. 이어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자[채권]'에 2,031억원의 설정액이 증가했다. 반면, '한화단기국공채증권(채권)' 펀드에서 8,147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국내채권형 펀드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삼성코리아단기채권증권자1[채권]'에도 3,93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며 뒤를 이었다.



〈표 12〉 국내채권형 수익률 TOP10 펀드

(단위 :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유형	설정액	순자산	수익률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KTB공모주분리과세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	KTB	하이일드채권	487	499	2.11	0.60	2.95	-
동양하이플러스채권증권투자신탁 1(채권)ClassC-W	동양	일반채권	201	204	1.23	0.61	2.36	-
홍국멀티플레이증권투자신탁 4(채권)C-w	홍국	일반채권	115	117	1.14	0.49	2.19	-
동양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A	동양	초단기채권	704	725	1.09	1.05	2.48	-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종류C-RP(퇴직연금)	한화	회사채권	116	119	1.06	0.07	1.68	8.42
유진채피연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 A	유진	초단기채권	2,387	2,416	1.03	0.76	1.99	-
알리안츠이시즈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V)	알리안츠	일반채권	550	552	0.97	-0.26	1.27	8.12
이스트스프링코리아밸류증권투자신탁(채권)클래스C-F	이스트스프링	일반채권	2,073	2,103	0.93	0.05	1.63	8.75
한국투자e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	한국	초단기채권	1,531	1,560	0.91	0.50	1.65	-
KTB전단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종류CI2	KTB	초단기채권	481	485	0.91	0.74	1.93	-

주1) 운용/모펀드 제외

주2) 같은 펀드 중 수익률 우수한 클래스 대상

주3)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6.01 / 2016년 하반기 기준: 2016.07.01 ~ 2017.01.02

출처 : FnSpectrum. 설정액 100억원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함. 국내채권형펀드(공모) 대상 / 기준일: 2017.06.01

〈표 13〉 국내채권형 자금유출입 상위/하위 펀드

(단위 : 억원)

구분	펀드명	운용사	유형	설정액	순자산	자금유출입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상위	유진채피연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유진	초단기채권	10,601	10,746	8,718	542	9,353	-
	하나UBS파워e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하나UBS	초단기채권	3,186	3,199	2,031	732	2,737	3,055
	동양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동양	초단기채권	3,241	3,294	1,849	794	2,948	-
	홍국퇴직연금멀티증권투자신탁 4(채권)	홍국	일반채권	926	936	667	-708	-40	-
	하이굿초이스증장기증권투자신탁(채권)	하이	일반채권	1,581	1,611	420	384	805	1,026
하위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한화	국공채권	9,516	9,591	-8,147	99	-7,956	8,917
	삼성코리아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 1(채권)	삼성	일반채권	4,196	4,209	-3,930	-4,161	-5,482	-
	키움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채권)	키움투자	국공채권	3,937	4,014	-2,051	-1,975	-4,298	1,198
	KB스타막강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운용)	KB	국공채권	2,062	2,080	-1,475	1,317	-166	1,165
	트러스트증장기증권투자신탁(채권)(운용)	트러스트	일반채권	596	598	-1,299	-72	-998	-530

주)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6.01 / 2016년 하반기 기준: 2016.07.01 ~ 2017.01.02

출처 : FnSpectrum. 설정액 100억원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함. 국내채권형펀드(공모) 대상 / 기준일: 2017.06.01

[4] Appendix

4.1 국가별 주가지수

〈표 14〉 국가별 주가지수 등락률

(단위 : pt, %)

지수	2017-05-31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KOSPI	2,347.38	6.44	12.23	15.84	18.35
KOSPI200	304.67	6.08	12.82	17.18	25.05
KOSDAQ	652.04	3.79	6.51	3.26	-6.64
MKF500	4,703.18	6.48	12.93	16.77	21.00
미국 다우산업	21,008.65	0.33	0.94	6.31	18.11
미국 나스닥	6,198.52	2.50	6.40	15.15	25.27
미국 S&P500	2,411.80	1.16	2.04	7.73	15.01
미국 러셀3000	1,426.10	0.80	1.66	7.09	15.36
미국 필라델피아	1,091.42	8.54	12.59	20.40	56.06
니케이 225	19,650.57	2.33	2.78	2.81	14.02
홍콩 항셱	25,660.65	4.25	8.09	16.64	23.28
홍콩 H지수	10,602.97	3.75	2.96	12.86	21.80
중국 상해종합	3,117.18	-1.19	-3.84	0.44	6.88
인도 Bombay Sensitive30	31,145.80	4.10	8.36	16.97	16.79
인도네시아 JKSE	5,738.15	0.93	6.52	8.33	19.62
말레이시아 KLSE	1,765.87	-0.12	4.26	7.56	8.60
독일 DAX 30	12,615.06	1.42	6.60	9.88	22.92
영국 FTSE 100	7,519.95	4.39	3.53	5.28	20.69

출처 : DataGuide

4.2 MSCI 지수

〈표 15〉 MSCI 지수 등락률 (USD기준)

(단위 : %)

구 분	2017-05-31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AC WORLD INDEX FREE	463.79	1.89	4.34	9.95	15.21
EMF (EMERGING MARKETS FREE)	1,005.33	2.80	7.36	16.59	24.51
EUROPE	1,685.15	4.08	11.24	14.55	13.77
EM EUROPE	307.58	-1.77	3.87	3.57	14.59
NORTH AMERICA	2,436.18	1.02	1.80	7.41	14.64
EMF LATIN AMERICA	2,532.31	-2.63	-2.61	8.19	24.24



4.3 MKF500 지수

〈표 16〉 MKF500 지수 등락률

(단위 : pt, %)

지수	2017-05-31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MKF500	3,886.77	-0.42	3.98	1.06	-5.54
대형주	3,816.33	-0.31	3.84	1.26	-5.89
중형주	5,141.45	-2.06	4.67	0.44	-1.04
소형주	2,659.08	0.49	4.51	0.05	-7.31
성장형	2,767.36	1.31	4.48	-1.04	-7.37
가치형	5,300.18	-1.92	3.54	3.01	-3.78
에너지	7,297.50	0.68	8.34	16.25	29.72
소재	5,734.94	-9.27	-1.82	2.01	-7.00
산업재	4,701.31	-5.33	0.88	0.39	-19.59
경기소비재	8,036.40	-1.68	-0.58	-2.54	-6.18
필수소비재	13,854.49	2.12	9.75	0.25	4.31
의료	11,008.02	5.17	5.22	6.49	22.92
금융	2,472.00	-3.82	3.34	-1.93	-13.66
IT	4,400.63	3.21	6.94	0.20	-8.15
통신서비스	708.73	6.02	2.25	7.78	1.62
유틸리티	2,754.24	0.70	6.31	19.50	18.93

출처 : DataGuide

4.4 금리 / 외환

〈표 17〉 주요 금리 등락률

(단위 : %, bp)

금리	2017-05-31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콜금리(1일물중개거래)	1.26	5.00	0.00	-1.00	-22.00
CD유통수익률(91)	1.38	-3.00	-11.00	-14.00	-18.00
CP(91일)	1.59	-3.00	-4.00	-11.00	-7.00
회사채(무보증3년, AA-)	2.19	-0.70	5.50	6.50	24.40
통화안정(364일)	1.46	-1.10	-0.20	-10.40	-5.90
통안채(2년)	1.60	-0.30	-1.10	-3.30	9.30
국고3년(국채관리기금채3년)	1.66	-1.40	-0.90	2.30	16.50
미국국채(10년)	2.21	-6.90	-18.60	-23.50	36.00
리보(미 달러) 1년	1.72	-5.03	-3.25	3.81	38.63

출처 : DataGuide

〈표 18〉 환율 등락률(WON/각국통화)

(단위 : %)

통화	2017-05-31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일본(100엔)	1,008.98	-1.30	0.18	-2.03	-5.96
홍콩(H.달러)	143.62	-2.06	-1.35	-7.56	-6.33
대만(D.달러)	37.12	-1.64	0.62	-0.13	1.67
중국(위안)	165.08	-0.13	0.15	-4.48	-8.65
싱가포르(S.달러)	808.25	-1.02	0.12	-3.03	-6.30
인도(루피)	17.34	-2.25	2.30	-2.25	-2.14
필리핀(페소)	22.46	-1.19	-0.04	-7.53	-11.85
인도네시아(100루피아)	8.42	-1.86	-0.94	-6.13	-3.66
태국(바트)	32.85	-0.33	1.42	-2.44	-1.41
오스트레일리아(A.달러)	833.28	-2.12	-3.91	-4.27	-3.28
EU(유로)	1,250.32	0.46	4.51	-1.56	-5.66
영국(파운드)	1,429.55	-2.92	1.88	-3.67	-17.81
덴마크(크로네)	168.06	0.44	4.42	-1.64	-5.70
스위스(S.프랑)	1,148.30	-0.10	2.18	-2.94	-4.39
러시아(루블)	19.74	-1.60	1.65	0.00	9.48
브라질(레알)	343.34	-3.73	-5.54	-7.26	2.79
멕시코(페소)	59.95	0.03	5.71	2.74	-7.01

출처 : DataGuide

4.5 국제원유 / 상품가격

〈표 19〉 상품가격 등락률

(단위 : %)

구분	상품	단위	2017-05-31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에너지	WTI(US.)	\$/bbl	48.32	-2.05	-10.54	-10.14	-1.59
	DUBAI	\$/bbl	50.09	-0.14	-9.22	-7.07	9.13
	BRENT(EU Dtd)	\$/bbl	50.31	-2.75	-9.50	-10.38	1.25
	난방유	\$/gal	1.52	0.75	-6.51	-11.09	1.19
	천연가스	\$/궤론	3.07	-6.26	10.71	-17.53	34.22
귀금속	금	\$/ounce	1,272.00	-0.47	1.55	10.61	4.71
	은	\$/ounce	17.37	-1.03	-5.71	8.99	8.74



구분	상품	단위	2017-05-31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비철 금속	알루미늄	\$/ton	1,919.50	-0.54	1.29	12.02	24.00
	전기동	\$/ton	5,615.50	-1.28	-5.40	2.08	19.48
	납	\$/ton	2,075.00	-8.99	-8.67	4.53	22.67
	니켈	\$/ton	8,810.00	-7.12	-18.95	-11.99	4.08
	주석	\$/ton	20,400.00	2.77	6.25	-3.32	25.93
	아연	\$/ton	2,572.00	-2.54	-8.57	0.35	33.68
반도체	DDR2 1GB	\$/개	1.22	9.91	20.79	5.17	5.17
농산물	CRB지수(1967=100)	pt	179.77	-1.08	-5.69	-6.62	-3.43
	옥수수	\$/bu	372.00	3.91	1.47	5.68	-8.06
	대두 (콩)	\$/bu	916.00	-3.09	-10.63	-8.07	-15.06
	소맥	\$/lb	429.20	2.58	1.08	5.20	-7.58
	커피	\$/lb	129.35	-3.04	-9.29	-5.62	6.42
	면화	\$/lb	76.98	-2.40	0.84	8.96	20.39

출처 : 관련 상품거래소

본 리포트는 특정 운용회사나 특정 펀드를 권고하거나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단지 펀드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리포트에 수록된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본 리포트의 수익률이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한 투자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